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귀태. 안셀모 916-847-820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역대기하 24:18-22	제2독서	로마서 5:1-5	복음	마태오 10:17-22
--------	------	---------------	------	-----------	----	--------------

◎말씀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죽고 난 뒤에 제자들이 겪을 고통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특히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 부모로부터 배척받고 배신 당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하느님을 맘에 품고 고난의 끝에 달을 때 받게 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일 우리들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기념하며 미사를 봉헌합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최초의 한국인 사제로서 한국 모든 사제들의 선배이십니다. 어린 시절 다른 두명의 소년과 함께 중국 마카오로 건너가 사제가 되기 위해 공부한 뒤 무수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당시 박해가 심했던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1864년 6월 선교 사제들의 입국을 돕다 관아에 잡혀 고초를 겪게 됩니다. 여러 차례의 모진 문초에도 신부님의 신앙과 기개는 흔들림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신부님의 굳은 의지는 그가 옥중에 쓴 편지에서 잘 드러납니다. 배교하라는 관장의 호통에 ‘나는 천주교가 참된 종교이므로 받들니다.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기에 내게 배교하라고 하는 것은

쓸데 없는 짓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한 형장에서는 ‘내가 죽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이 바야흐로 시작되려 합니다. 여러분도 사후에 행복하려면 천주를 믿으시오.’ 라고 말한 뒤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자랑스러운 순교자들의 후예인 우리들도 이 같은 올곧은 믿음을 배워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의 영계 믿고 맡기라고 가르치십니다. 자신의 가르침대로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성인의 발자국을 따라 세상 속에 하느님의 정의를 세우는 노력을 해나갑시다.

예수님과 김대건 신부님께서 알려주는 하느님의 나라는 다른 물질도 아닌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인내와 수양을 실천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은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고 참됩니다. 오늘 기념하는 김대건 안드레아 순교 사제와 함께 기도하며 먼 훗날 하느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나누기를 청합시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지난주 우리들 정성	
7월7일(화)	연중 제14주간 화요일	오후7시30분	교 무 금 주일헌금	\$ 1,340.00 \$ 597.00
7월8일(수)	연중 제14주간 수요일		미사예물 성소후원	\$ 615.00 \$ 23.00
7월9일(목)	연중 제14주간 목요일	오후7시30분	사회복지 성 물 방	\$ 62.00 \$ 0.00
7월10일(금)	연중 제14주간 금요일		기타수입	\$ 110.00
7월11일(토)	성 베네딕토 아빠스 기념일		합 계	\$ 2,747.00
7월12일(일)	연중 제15주일	오전 9시 오전11시	미사참례자	학생: 2명 성인: 60명
교무금 봉헌자	황성연(7-8월)손창식(5-8월)박원상.김승제(6-7월)장애익(4-6월)류승교(3월)김계숙.전기례 박용호(7월)			

◎신앙생활(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우리 교회는 7월 5일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 대축일로 지낸다. 한국 사제들의 수호성인이며 한국 최초의 사제이신 성 안드레아 김대건 사제(1821-1846년)는 충청도 솔미의 구교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비상한 재주와 굳센 성격과 진실한 신심이 드러났다고 한다. 15세 때인 1836년에 모방 신부의 주선으로 마카오로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1845년 1월에 죽을 고생 끝에 압록강을 건너 귀국하는 기쁨을 얻는다. 서울에 도착한 후 그는 극도로 건강이 나빴으나 건강이 회복되기도전에 전교신부를 영입하려는 목적으로 다시금 상해로 떠난다. 풍랑으로 인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상해에 도착한 그는 1845년 8월 17일에 김가항에서 페레올 고주교 집전으로 서품되는 기쁨을 얻었다. 같은 달 31일, 고 주교와 안 신부를 모시고 충청도 나바위에 상륙하여 선교활동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었다. 한편 그는 만주에서 기다리는 메스트로 신부 일행을 입국 시키려고 활약하던 중 1846년 6월 5일 밤에 순위도에서 체포되어 그의 행적이 세상에 알려졌던 것이다.

성인은 수차례에 걸쳐 문초와 형벌을 받았으며, 마침내 김대건 신부는 사제생활 1년 1개월만인 1846년 9월 16일에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을 받고 순교하니, 이때 그의 나이는 26세였다. 1925년 7월 5일 비오 11세께서 김신부를 비롯 79명의 순교자를 시복하시고, 비오 12세는 1949년 11월 25일에 한국에서 선교하는 모든 성직자들의 수호자로 선언하였으며, 요한 바오로 2세는 1984년 5월 6일에 서울에서 한국 순교자 103위 시성식을 거행하시고, 그를 한국의 대표 성인으로 삼으신 것이다.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옥.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김초지.마리아/이규청.제노비아/엄모니카 배미성.오틸리아/박모란.글라라/고공자.벨라뎃다 신용경.그레고리오/이상일.마리아/곽화근.요한
- 기도 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 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서향자.글라라	익명	생	곽화근.요한	곽유경.데레사
연	서향자.글라라	이나숙.데레사	생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들과 모든 의료봉사자들	윤태옥.안나
			생		

간장종지

◎방랑자◎
 당신을 피해 다닌 한 세월의 방랑자, 내 부르는 소리, 내 울음 들으셨습니까.
 당신은 내 떨리는 여정의 유일한 등불, 주소서, 고통의 상처 관통해 오는 그 평화.
마종기 노렌조.시인, 의사

(광고)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좋은사람들, 좋은아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p> <p>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 cell</p>	<p>에어컨 수리</p> <p>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p> <p>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p> <p>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최병엽공인회계사</p> <p>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의사</p> <p>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p>동부뉴욕 4박5일 관광 엘로스톤 유럽 관광전문</p> <p>게스관광</p> <p>(480)244-0033 카카오톡:guesstour www.guesstour.com</p>	<p>Suzie Hair World</p> <p>2901 Mather Field Rd, #A, Rancho Cordova CA 95670 윤수산나 (916)368-8000</p>
<p>성당에 제출할 CHECK 발행하실 때</p> <p>Payee to: St.J.H.C</p>		<p>♡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p>	

◎공동체 소식(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 1.미사 재개에 따른 미사시간
주일미사;일요일 오전9시.11시.성당
평일미사;화요일.목요일 오후7시30분.성당
모임 및 회합.행사 중지는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장합니다.
미사참례자는 이름과세례명.연락처를
적어주세요.
- 2.본당 소독봉사(매주 미사전후)
이번주:사도들의모후 다음주:본당 M.E
- 3.우편이나 사무실로 교무금과 주일헌금을
봉헌해주신 신자들에게 감사드려요
그동안 미사가 없었던 관계로 인하여
본당재정에 어려움이 있사오니 밀린 교무금과
주일헌금을 봉헌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4.무료 Virtual Job Fair 안내
일자:8월1일(토)오후3시-5시 대상:중고등부
신청기한:17일(금)까지 주관:청년부
신청웹사이트:Tiny.cc/jobfair20
(선착순10명에게 Gift Card 증정)
문의:청년부회장 최스텔라 (916-294-5578)
- 5.장례미사 및 연도(서향자.글라라)
일시:6일(월)오전11시.성당
신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유가족들과 함께 미사
를 봉헌합니다. 신자들의 기도를 바랍니다.
- 6.감사합니다
소독약품및 스프레이:김상돈부제님(\$500상당)
감사헌금:장애익(\$110)

◎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1. 다음의 교우들은 본당 공동체 미사에 참여
하지않고, 가정에서 대승으로 주일미사참례
의무를 대신합니다.
 - 영유아와 그의 부모, 기저질환자, 노약자,
연로한 어르신 교우
 - 전염병 확산의 우려로 인한 가족의 반대로
미사 참석이 어려운 교우.
 - 코로나19로 인해 미사에 참석하는 것에 심리적
으로 큰 부담감을 갖는 교우.
2. 미사 참례시 안내사항
 - 미사 전후에 성당을 소독합니다.
(미사 장소와 친교실, 화장실 등)
 - 미사 참례자는 성당 입구에서 손 세정제를
사용한 뒤 성전에 들어갑니다.
 - 미사 참례자는 다른 사람과의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합니다. 다만, 가족은 예외입니다.
 -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
하고 성체를 모실 때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 미사중 신자가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응답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하고, 성가는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반주로 대신합니다.
 - 성체분배 전, 주례 사제는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만 외치고 성체분배
시에는 사제와 성체분배자 모두 침묵 중에
성체를 분배하고, 양형 영성체와 입으로 하는
영성체는 금지합니다.
 - 미사 중(평화의 인사등) 뿐만 아니라,
미사가 끝난 후에도 악수 등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화답송



전례봉사	연중제14주일(7월5일)	연중제15주일(7월12일)	연중제16주일(7월19일)	연중제17주일(7월26일)
해설	김은선.제노베파	김선영.플로라	정미정.루시아	김은영.폴리나
제1독서				
제2독서				
복사	송돈희.요셉	김규철.레오	박성호.요한바오로	최진호.다니엘
헌금위원	레지오 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